

“나는 시기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기심의 정당성 - 〈위험한 독신녀〉와 〈여교사〉 -

전 소 영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90년대 미국영화 〈위험한 독신녀〉(*Single White Female*, 1992)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여교사〉(2017)를 중심으로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들 간의 갈등관계의 표출이 아니라 성별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보존적 반응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의 감정오만으로 분류해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기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공통적인 감정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사회에서 타자와의 비교에서 비롯한 시기심은 그 부정적 측면만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위험한 독신녀〉에서 헤디의 앨리 따라하기는 이상화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와는 같지 않으며 그녀의 모방은 앨리의 정체성을 변형시키고자하는 공격적인 자기주장의 형태이다. 〈여교사〉에서의 여주인공의 시기심 또한 상대방과의 차이를 주장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기보존적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들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들 간의 시기심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기심이 폭력적인 결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억압된 시기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위험한 독신녀〉, 〈여교사〉, 시기심, 정동, 감정, 모방

I. 들어가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지만 기꺼이 인정하기 힘든 감정이 시기심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을 타자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시기심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가슴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Freud)는 어린 소녀의 남근 선망(penis envy)을 이야기 하며 여성의 열등감과 결핍을 일반화했지만, 클라인(Melanie Klein)은 시기심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작동하는 타고난 충동으로 본다(Joffe 534). 유아가 젖을 주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해 느끼는 최초의 시기심은 그 대상을 어머니에게 옮기며 적절한 만족과 결핍의 상황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시기심과 증오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만 그 감정들의 정도나 강도는 즐거움과 만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남성에게도 여성의 임신, 출산 능력 혹은 모성애에 대한 시기심이 있으며 단지 여성보다 성공적으로 승화되었을 뿐이다(Horney 27-38). 결국 시기심이 것처럼 본능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조차 은밀하게 숨기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었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 감정은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감정과 도덕이라는 단어는 서로 그 영역이 다른 것처럼 보이나 유독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도덕적 정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슬프거나 기쁜 감정이 도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기심의 정당성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기심의 대상과 정도의 적절성이 시기심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진 자에게 시기하지 않는다. 자신은 가지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자를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언제나 시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으며 그 감정이 정당한 경우에조차도 스스로 죄책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유아기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원초적 감정으로서의 시기심은 그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악한 시기심과 온순한 시기심 혹은 파괴적 시기심과 긍정적 시기심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

누스바움(Nussbaum)은 시기를 “원초적”(primitive)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버리는 것은 도덕적 진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212). 그러나 응가이(Sianne Ngai)는 주체의 시기심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 혹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되어 과민반응, 망상적 혹은 히스테리적인 것으로 부인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시기심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식하거나 반응하는 유효한 형태로 인정하는 문화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언급한대로 진정한 정치적 충동의 가능성이 없는 “사적인 불만족”(private dissatisfaction) 혹은 “정신적인 결함”(psychological flaws)으로 축소됨으로써 타자를 향한 비판적인 주체로서의 잠재성은 배제한 채 결핍의 자아를 반영하고 남성 보다는 여성적 성격으로 변형되었다(128-29). 시기심은 인류학적으로 원시시대에 사유재산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느껴왔던 오래된 감정이지만 신분제도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의 유동성이 적었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사회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 그리고 능력들을 스스로 혹은 타자에 의해 끝없이 비교하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것을 곧 사회적 성공이나 자기 가치 그리고 현실의 행복과 연결시킨다.

버틀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시기심을 불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며 칭찬이나 찬양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시기심이 행복에 대한 장애물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과연 자신의 주변인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런 시기 없이 칭찬으로만 대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불확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외부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것과 느끼는 것을 타자가 가진 것과 비교한다. 그리고 시기심은 정당성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질문을 제

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패자에게 침범하는 시기심은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으며 때로는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시기심과는 다른 형태의 반응이나 감정으로 발현된다. 그 반대의 형태인 찬탄과 칭찬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칭찬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심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무의식적 시기심은 표면적으로는 온화하지만 악의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시대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건 서로를 비교하는데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시기심은 자기 가치와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리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단계별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처지와는 반대로 특정한 이익이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기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월하다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라이벌을 폄하하고 비방하기 시작한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적 평가와 비교는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실패한 욕망은 적대심과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시기심을 타자에게 드러내지 않을뿐더러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혐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울함과 의기소침, 분노, 파괴적 폭력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살해에 이르기까지 시기심은 종종 표면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언제나 여성적 감정 그리고 노골적 혹은 암묵적 패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시기심을 여성 고유의 부정적 혹은 비도덕적인 감정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느끼는 주체의 도덕적 결함이나 무능력만을 비난할 수 있을까? 경쟁심으로 이어져 긍정적 결과의 동인이 되는, 열등감이나 적대심과 같은 고통이 없는 시기심은 없는 것일까?

본 논문은 90년대 미국영화 <위험한 독신녀>(Single White Female, 1992)¹⁾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여교사>를 중심으로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들 간의 갈등관계의 표출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성별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보존적 반응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시기심을 단순히 여성의 감정으로만 분류해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기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공통적인 감정이고 각 개인이 마주하는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작동하는 정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수치심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은폐되어 온 시기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파괴적 결과로 이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동인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II. 모방과 이상화

1930년대의 미국영화의 전형적인 여성간의 갈등관계를 연상시키는 영화 <위험한 독신녀>의 지배적 감정은 시기심이다. 홀링거(Karen Hollinger)는 이 영화가 여성간의 우정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자를 두고 벌이는 경쟁으로 그리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여성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외면한 채 여성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남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207). 중산층의 세련된 백인 도시여성 엘리(Allie)는 남자 친구와 다툰 후 신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내고 헤디(Hedy)라는 지방출신의 아가씨와 살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곧 헤디가 엘리의 모든 것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옹가이는 이 영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혹은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동일시(identification)와 욕망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적대관계(antagonism)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보고 시기심과 모방(emulation)의 측면에 주목한다. 그러나 헤디의 모방은 단순히 엘리의 어떤 물건이나 그녀의 남자를 가지려는 대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위해 더블(double)로서 행세한다

1) 존 루츠(John Lutz)의 1990년 소설 *SWF Seeks Same*를 슈뢰더(Schroeder)감독이 영화한 작품이다.

(141). 그녀의 모방은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공격과 적대감으로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형태의 찬양이기에 앨리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응가이는 또한 헤디의 앨리 모방하기는 헤디가 앨리를 시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방이 반드시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142). 특히 헤디의 모방은 상대방을 정의하는 특성들을 독점하여 그녀를 추월하거나 가리고 빼앗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상화하여 스스로를 바꾸는 대신, 상대방의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불안 혹은 고통을 유발시킬 목적을 가진 일종의 공격적인 자기주장(self-assertion)의 형태이다. 즉 헤디의 따라하기는 상대방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모방대상과 자신과의 ‘불일치’ 혹은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기심은 자아와 상대방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헤디는 앨리를 모방하여 그녀의 특이성을 제거한다. 그녀의 모방은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며 결국 자신이 앨리를 완벽하게 모방함으로써 앨리의 정체성을 원본이 없는 복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결과가 된다²⁾. 헤디의 모방은 동일시가 아니다. 그것은 앨리의 여성성을 다시 정의하여 이상화의 동일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페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th)의 소설 『유능한 리플리씨』(The Talented Mr. Ripley 1955)는 남성간의 시기심을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 톰 리플리(Tom Ripley)는 상대방과의 동일시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다³⁾.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위험한 독신녀>의 경우가 훨씬 적지만 헤디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앨리를 모방했고, 리플리는 디키(Dickie)를 완전히 모방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디키 대신 사치와 명품들을 즐기지만 그가 죽인 것은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비루한 자아였다.

2) 응가이는 또한 헤디의 시기적인 모방을 앨리를 하나의 예(example) 즉 표본성(exemplarity)이 없는 이미 정의된 범주의 유행을 따르는 어떤 것(something that appears “after the fashion”)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60).

3) 김영미는 「현대 소비 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페트리셔 하이스미스의 『유능한 리플리씨』에서 톰 리플리의 자아 발전은 선망하는 인물(디키)을 모방함으로써 주체를 채워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선망하는 인물의 복제본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한다고 지적한다(63).

이들 작품에서 시기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정체성을 복제하고 그들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헤디는 자기 정체성의 주장을 위한 모방이었고 리플리의 경우는 자기소멸의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대량생산되는 소지품들과 명품들을



[이미지 1] 헤디의 엘리 모방하기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환상은 현대소비사회에 더욱 커졌지만 현실은 단순히 똑같은 상품을 소유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 이상화하는 대상과 결코 같아질 수 없다. 헤디의 시기심에서 중요한 점은 찬양에서 적대관계로 변화하면서 이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판적 주체(critical agency)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161). 헤디의 시기심의 비판적 잠재성은 엘리가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모방하기 쉬운 소지품들과 외모 따라하기가 엘리의 특성들을 이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 자체를 특수하지 않은 복제하기 쉬운 존재로 변형시키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리플리에게 호화로운 소유물들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이지만 헤디에게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순환되는 물건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에 대한 선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의 특성을 이상화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일종의 헤디의 저항의 힘으로 작용한다. 영화의 결말에서 헤디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녀의 시기심은 단순히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의 가능성 혹은 능동적 행동의 동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III. 시기심에서 존재론적 수치심으로

매과이어(Maguire)는 특히 여성간의 시기심의 기능은 단순히 욕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족함, 굴욕 혹은 결핍과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라고 본다(117-52). 그녀는 시기심의 잠재적인 파괴성과 공격성보다는 감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질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데 반해 시기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적한다. 시기심에 따르는 자신의 무능함이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은 무의식속으로 파고들고 결국 시기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른다. 시기심과 무기력함은 항상 같이 동행하며 시기심을 느끼는 주체가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악의에 찬 시기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결국 시기심을 느끼는 주체가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는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의식적일 때는 그 공격성을 통제하기 힘들다. 최근 개봉된 영화 김태용 감독의 <여교사>는 시기심이 계속적으로 억압되고, 은폐되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출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에 반응하는 한 여성의 자기보존적 행위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효주는 언제든지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이다. 영화는 담임을 맡고 있는 정규직 여교사의 출산으로 효주가 갑자기 담임을 떠맡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출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정규직 교사의 대체 인력인 효주는 오랫동안 정규직 교사의 기회를 위해 묵묵히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여교사’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효주는 이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이중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 십년이나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글을 쓴다는 핑계로 경제적으로 효주를 착취하는 상황이기도 그에 대한 사랑이나 기대 또한 증오와 짜증으로 변색된 지 오래다. 동거남인 남자친구에게조차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 효주는 현실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두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남자친구를 참아내며 보살피기까지 한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지만, 학교이사장의 딸 혜영의 갑작스런 등장은 같은 과목을 맡은 효주의 해고를 예견하게 한다. 자신의 현실적 지위가 불안한 효주에게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혜영은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기는 더욱 고통스럽다.

효주가 입고 있는 무채색의 바지정장과 혜영의 화사하고 발랄한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그녀들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생을 상징하는 빛깔이다. 그리고 효주는 기억할 수 없지만 자신을 대학 선배로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혜영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순히 이상화된 상대방에게 향하는 시기심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것은 부당하게 많은 업무를 자신에게 떠넘기는 남자교사들이나 혜영과 자신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만이 아니다. 그녀의 어두운 인생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타자의 행동이 아닌 그녀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교하여 느끼는 자신의 가치 없음이다. 그녀가 시기하는 것은 혜영이라는 자기보다 나은 처지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효주에게는 없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배경과 직위이다. 따라서 혜영에게 느끼는 효주의 시기심은 누가 보아도 그럴만하다. 그리고 그녀가 부러워하는 것은 혜영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기에 이때의 시기심의 정도를 매긴다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몰래 감추고 싶은 시기심은 고정된 감정으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수치심으로 변한다. 동료 교사들의 차별적인 대우나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연한 발언들이 그녀의 감정을 점점 더 부정적 모멸감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영의 미니스커트를 핸드폰으로 찍던 학생들을 목격한 효주가 학생을 처벌하려했을 때 학생이 그녀에게 뒤통수에 던진 “정규직도 아니면서”라는 말은 자신의 은밀한 시기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선생으로서 부적절한 복장을 한 것은 혜영의 잘못이고 그녀의 부당한 행동은 효주의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변명이 되기 때문이다. 효주는 결국 그러한 부당함의 희생자이고 혜영은 그녀가 누리고 있는 이익들을 누릴 자격이 없기에 효주가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는 타자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억압된다. 효주의 시기심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정적이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감정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그녀의 시기심은 분노로 변형되어 분출된다.

혜영의 교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효주의 혜영에 대한 비판은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다른 교사들과의 점심 식사자리에서 학생의 핸드폰을 내밀며 복장에 대한 충고를 하고, 뻗뻗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혜영이 약혼남을 통해 건네준 선물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말한다.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사장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교사들은 모두 혜영에게 굽실거리지만 효주는 아직 스스로를 지킬 자존심과 포기하지 않는다. 혜영의 알량한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녀와 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효주는 처음부터 혜영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필요이상 친절하지도 않다. 혜영이 학교로 부임한 후 회식자리에서 혜영이 효주를 선배라고 부르며 친분 있는 사이라는 것을 공개하지만 효주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자존심 강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효주에게 혜영이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자신의 태도를 바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무용특기생 재하와 혜영의 부적절한 관계의 장면을 목격한 효주는 이제 만만하지 않다. 혜영을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잡은 효주는 이제 혜영에게 당당하다.⁴⁾ 뿐만 아니라 혜영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재하라는 아이정도는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가진다.



[이미지 2] 혜영에게 당당해진 효주

그러나 효주가 혜영이 가진 소중한 것을 잃기를 바라는 것은 시기심 그 자체의 부정적 특성이 아니라 시기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기심에는 시기하는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욕망이 따라 오지만 이것은 이미 침범된 자기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처

4) 효주와 혜영이 스크린 전체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녀들 간의 감정적 위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영화의 초반에서 효주는 의자에 앉아 있고 혜영이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내려보는 위치에서 서로 똑같이 서서 마주보는 장면으로 변하고, 영화의 후반부에서 효주가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다시 그녀는 초라해진다.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모멸감과 열등감에 대처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 보존적 반응이기에 파괴적 욕망이 시기심에 본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녀가 시기하는 것은 혜영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누리고 있고 효주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 효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혜영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효주의 시기심은 재하라는 대상의 개입으로 혜영과의 삼자관계는 ‘누군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상화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는 질투로 변주된다. 그리고 재하에 대한 질투의 감정은 효주뿐만 아니라 혜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기심이 타자가 향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질투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잃게 될까봐 두려워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심의 감정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지만, 질투는 라이벌의 파트너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반면 시기심은 라이벌의 우월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효주에게는 재하라는 파트너로 인한 질투와 혜영에 대한 시기심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집안 형편상 무용 학원조차 다니지 못하는 재하가 체육관에서 술에 취해 효주에게 실수로 한 키스가 그녀에게 시기심에 더하여 질투까지 느끼게 하는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준다. 자신의 사비로 재하를 지인의 학원에 등록시키고 콩쿨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효주는 마치 재하의 어머니처럼 그를 돌본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재하 또한 혜영의 약혼녀처럼 그녀를 현실적으로 구원해줄 능력이 안 되지만 그녀는 항상 스스로 자신보다 부족한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하다. 재하는 어느날 갑자기 파리로 가겠다고 자신을 떠난 남자친구 대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과 진심을 투자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혜영의 부도덕성을 증명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만 은밀히 혜영과의 만남을 계속하면서 효주를 속이는 사악하고 이중적인 학생이었다. 혜영은 자신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해 재하와 짜고 효주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치 재하가 효주를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시킨 것이다. 효주는 콩쿨

이 끝나는 날 재하의 양복을 선물로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결국 재하와 혜영이 집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다음날 혜영에게 재하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지만, 효주 또한 재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있는 혜영은 이제 자신의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다. 혜영은 자신의 약점이 들통날까봐 자신과 똑같은 부정행위를 효주가 저지르도록 재하를 이용한 것이다. 효주가 재하를 위해 지불한 학원비를 돌려주며 모든 것이 혜영이 계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효주는 이제 시기심과 질투, 수치심과 모멸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혜영의 계략으로 효주는 자신에게 소중한 직업뿐만 아니라 감정적 진정성조차 농락당했으며 이제 혜영은 돈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듯 행동한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쏟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 같은 존재인 재하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을 깨닫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날 다른 계약직 교사들은 계약이 연장됐지만 효주만이 실질적인 해고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혜영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실수와 오만함에 대해 사죄하는 영화의 다음 장면은 효주의 절박함을 나타낸다. 그동안 어렵게 자존심을 지켜왔기에 그녀의 극적인 태도변화는 그녀의 굴복이나 포기의 행동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차라리 해고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현실과 부딪칠 여유가 더 이상 그녀에게는 남아 있지 않았다. 혜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더라도 한 듯 못이기는 척 효주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호의를 베푼다. 이사장 딸인 혜영에게 효주의 기간제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효주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인생이 걸린 일이다.



[이미지 3] 혜영에게 무릎 꿇는 효주

이제 혜영은 마치 효주가 자신의 하녀가 된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 차심 부름을 시키며 재하에 대한 효주의 사랑의 감정마저 가치 없는 일로 전락시킨다. 효주의 속마음을 알고 떠보기나 하는 듯 “언니 설마 재하를 진짜 사랑한 건 아니죠?”라는 혜영의 비웃음 섞인 말은 이제껏 눌러왔던 그녀의 시기심과 자기수치심이 분노와 증오로 마치 옆에서 끓고 있던 물주전자처럼 폭발하도록 만든다. 효주의 절박한 상황과 감정적 억압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혜영은 효주를 단지 돈이나 자신의 배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효주의 시기심은 그녀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효주는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잠이 든 혜영의 얼굴에 붓고 그녀의 복수는 혜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화의 결말이 아쉬운 점은 효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영화를 보던 관객은 결국 비극적 결말의 원인을 혜영의 야비한 행동이나 사회적인 불평등보다는 효주의 비정상성으로 결론짓게 한다는 점이다.

<여교사>의 부제인 부정행위(misbehavior)는 과연 누구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효주의 잔혹한 복수는 결국 스스로의 파국 또한 자처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애초의 그녀의 시기심은 적절했고 그녀의 시기를 자기수치심과 폭력적인 분노와 증오의 정동으로 변화시킨 것은 사회적 부정과 주변인들의 부당행위의 결과였다. 혹자는 이 영화를 어린 학생을 두고 벌인 두 여자의 불순한 치정관계 혹은 사회적 실패자의 복수극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효주가 자신의 파괴적 시기심을 극복하고 도덕적 발전을 이루거나 불평등에 맞섰더라면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효주의 혜영의 대한 시기심으로 인한 적대감과 폭력성은 긍정적 경쟁관계나 모방에 의한 동일시 또는 단순한 자기극복으로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기심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와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화시키는 혜영이라는 존재와의 차이를 주장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절박한 반응이었다. 효주의 집에서 재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난후 효주의 복장은 늘 입고 다니던 정장까지 대신 혜영이 즐겨 입는 치마로 바뀐다. 효주가 혜영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그녀가 사랑하던 애인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위험한 독신녀>에서의 헤디와 엘리와의 관계에서처럼 헤영의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시기심에서 비롯한 공격적인 자기주장의 한 형태였다.

영화는 비록 효주의 살해라는 자기 파괴적 결말로 끝이 나지만 효주의 시기심은 파괴적 욕망과 동일시 될 수 없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에서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한 절박함 속에서 그녀에게 진정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헤영이 누렸던 삶은 효주에게 부당해 보였지만 그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으며, 그녀의 시기심에서 발전된 적대심과 분노는 존재론적 수치심에 대처하기 위한 무의식적 자기 방어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회 어느 곳보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체제와 규범을 따라야 하는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타자를 배려했던 힘없는 여성에게 사회적 수치가 개인적 수치로 전가되었을 때의 파국을 보여준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상의 고용형태로 당연시되는 경쟁사회에서 도덕과 이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으로 효주가 감내해야 했던 수치심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 교사라는 그녀의 직업은 헤영에 대한 시기심을 더욱더 은폐하고 억압해야 하는 감정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모멸감으로 전이되어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된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의 수치심마저 수치스러워해야 했던 나이 든 비정규직 여교사인 효주는 결국 이 사회에서 ‘위험한 독신녀’일 뿐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효주의 냉담함은 그녀가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무관심과 다르지 않다.

IV. 나가며

우리는 정동(affect) 혹은 느낌(feeling)이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것의 반대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지 않으며 집단적이다. 감정이 능력이자 자본이 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관계가 중요하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계급차이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급은 존재한다. 서로 다른 계급 혹은 상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혹은 정동들은 제대로 인식되기도 전에 변형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때 정동 혹은 느낌은 사고(thinking)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속의 느낌, 느낌 속의 사고로 이해되어야 한다(Massumi 91). 그것은 이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항상 움직이는 것이어서 사람보다는 사건(event)에 더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동은 특정한 대상 혹은 주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주체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관련된 개인들 사이에 지나가는 어떤 것이며 개인들은 무언가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정동은 두 개의 몸이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결과와 역할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시기심이 파괴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개인의 부족함이나 결핍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가 마주한 사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적 사건 속에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해어화>(2016)의 주인공 소울의 시기심은 그것이 시기하는 자와 그 상대방의 관계가 변해가면서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이다. 소울은 기생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우며, 명창의 딸로서 그 노래실력 또한 인정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절친 연희와 소울은 서로에게 돌도 없는 친구였지만, 당대의 유명한 대중가수 이난영과 작곡가이자 소울의 애인인 연우가 우연히 연희의 숨겨진 노래실력을 발견하면서부터 둘의 관계는 친구에서 경쟁자로 바뀐다. 서로를 아껴주던 친구였지만 연희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정과 애인을 빼앗기게 된 소울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진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연희에게 잃음으로써 가진 자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자로 전락하고 질투와 시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결국 연희가 부르는 대중가요를 흥내 내어 다시 자신이 가졌던 우월자의 자리와 타자의 인정을 되찾는 길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나 연희의 노래실력은 대중으로부터 점점 더 인정받기 시작했고 연우마저 연희에게로 돌아서게 되자 소울은 일본간부의 정부가 되어 연희와 연우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결국 연희는 일본군의 총에 죽고 연우는 그녀의 뒤를 따르지만,

소울 또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되찾지 못한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할머니가 된 소울이 방송국에서 발견한 연희의 레코드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에피소드가 추가된다. 소울은 연희의 대중가요를 따라하느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 불렀던 정가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채 한 평생을 살았고 몇 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연희이기를 소망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방송국 PD가 누구의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곡이라며 소울이 젊은 시절 녹음했던 정가를 극찬하며 들려준다. 소울은 그때서야 평생 자신의 재능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연희와 연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젊은 시절을 파멸로 이끈 자신의 시기심과 대면하게 된다. 그녀가 연희를 모방하여 그녀의 창법을 따라했던 것은 결국 그녀와 같아지려는 동일시의 행동이었고, 그녀는 연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녀이기를 바랄 정도로 평생 그녀를 이상화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 소울의 시기심은 <여교사>에서의 효주와 혜영의 관계에서처럼 온화한 시기심에서 악의적 시기심으로 이동하며 그녀가 마주한 관계적 상황 속에서 조율된다. 효주와 소울의 시기심은 누가 봐도 그럴만한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와 사건들을 경험하며 자기자치를 위한 방어적인 반응으로 드러난다. 각각 연희와 연우, 혜영과 재하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들의 시기심은 분노, 증오, 복수심으로 변주되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그녀들의 시기심은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관련된 감정이었고, 비록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현실적인 다른 선택이 없었다.

에바 일루즈(Eva Illouz)가 『감정자본주의』에서 정의했듯 이제 인간은 ‘호모 센티멘탈리스’(homo sentimental)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욕망과 소비의 시대 시기심은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의 정체성에 중요한 감정이 되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시기심이 부러움에서 그친다면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악의를 가진 시기심은 상대방뿐

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치명적이다. 상대방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은 공개할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진 시기심은 스스로의 열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온화한 시기심은 상대의 행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지만 악의적 시기심에 대한 인정은 곧 수치심이기에 자신이 겪고 있는 시기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드는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자신이 마주한 불합리한 상황과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타자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시기심은 타자에 대한 증오나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정동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미, 「현대 소비 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패트리셔 하이스미스의 『유능한 리플리씨』」, 『미국소설』 18권 2호, 2011.
-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 Hollinger, Karen, “Backlash: The Anti-Female Friendship Film,” *In the Company of Women: Contemporary Female Friendship Film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 Horney, K, *The flight from Womanhood. Gender and Envy*, New York: Routledge, 1998.
- Jameson, Fred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Cornell UP, 1981.
- Joffe, W. G., “A Critical Review of the Status of the Env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0, 1969.
- Massumi, Brian,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Press, 2015.
- Maguire, M., *Living with the Sphinx: Papers from the Women's Therapy Center*, London: The Women's Press, 1987.
- Ngai, Sianne, *Ugly Feelings*, Cambridge: Harvard UP, 2005.
- Nussbaum, Martha,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P, 2001.

❖ ABSTRACT

"I Envy, therefore I Am": Justification of Envy
– 〈Single White Female〉 and
〈Female Teacher〉

Jun, Soyoun

This essay interprets envy not as a form of conventional conflict between women but as a type of common response of self-preservation focused on envy represented in the American film, *Single White Female*, and the Korean film, *Female Teacher*. Although envy is traditionally classified as a feminine emotion, it is an innate human emotion regardless of gender identity. Especially in the competitive era of neo-liberalism, we recognize only its negative side while overlooking its positive side as envy originates from comparison with others. Hedy's mimicking of Allie in *Single White Female* is not the same as idealized identification because her envy is aggressive and a self-assertive response while transforming Allie's identity. Likewise, envy of a protagonist in *Female Teacher* triggers an action of self-preservation against irrational social and personal inequality. Accordingly, a type of resistant and critical power resides in envy between women in these films. Therefore, proper recognition of repressed envy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its transition towards a violent outcome.

Key Words : <Single White Female>, <Female Teacher>, envy, affect, emotion, emulation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